

스크린으로 꽂치게

민족대명절 추석을 맞아 한국 영화 4편이 상영된다. 선선한 가을바람과 풍성함이 가득한 연휴, 극장가에서 최신 개봉작들을 관람하며 '문화 피서'를 즐기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추석연휴 직전인 27일에는 김지운 감독 '거미집', 김성식 감독 '천박사 퇴마 연구소:설경의 비밀', 강재규 감독 '1947 보스톤' 세 편이 동시 개봉할 예정이다. 이어 연휴 끝자락인 다음 달 3일 남대중 감독 '30일'도 스크린에 오른다.

◇좌충우돌 영화제작기 담은 '거미집'

코미디 영화 거미집은 '영화에 대한 영화'를 주제로 펼쳐지는 메타 영화의 일종이다. 1970년대 극장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시놉시스 무차별적 검열이 자행됐던 '한국영화사의 암흑기'를 담았다.

작중 김감독(송강호)은 데뷔작 이후 악평을 받아 의기소침해 있는 인물로 촬영을 거의 마친 작품 '거미집'이 마지막 희망이다. 그는 새로운 결말에 영감을 주는 꿈을 꾸다. 꿈의 결말을 차용하면 결장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추가촬영을 진행하지만 대부분은 심의에 거미줄처럼 걸린다. 김감독의 작품은 거미줄에 걸린 것일까, 혹은 고난 끝에 역경을 딛고 아름다운 날개를 펼 수 있을까?

이민자 역은 임수정, 강호세 역은 오정세가 연기한다. 전여빈, 그룹 F(x) 출신 정수정(크리스탈) 등이 출연하며 각본은 신연식이 썼다.

◇가짜 퇴마사와 진짜 귀신 조우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오싹한 공포 스릴러 작품도 관객들을 맞이한다. 영화 '천박사 퇴마 연구소'는 2014년 네이버에 연재했던 완결웹툰 '빙의'를 원작(글 후렛사, 그림 김홍태)으로 김성식 감독이 필름에 담았다. '귀신을 믿지 않는 퇴마사'와 '귀신을 보는 소녀'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미스터리 사건들의



27일 개봉

'거미집'·'1947 보스톤'
'천박사 퇴마 연구소:설경의 비밀'

10월 3일 개봉

코미디 로맨스 '30일'

원인을 심령현상과 접목한 이야기다.

영화에서 '천박사(강동원)'는 신을 모시는 성황당을 관리하는 당주집 장손이지만 귀신을 믿지 않는 가짜 퇴마사 역할을 연기했다. 그는 독심술에 가까운 통찰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 가며 거짓 퇴마를 하며 돈을 벌며 나간다. 어느 날 영경(이솜)이 찾아와 거절하기 힘든 제안을 하는데...

무당의 영력을 사냥하는 악귀 범천 역은 허준호가 맡는다. 천박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며 '진짜 사건'에 얽히고 빙의 된 동생을 구하는 비밀스러운 캐릭터 유경은 이솜이 연기한다. 또 이동휘는 '강도령(인배)' 역으로 천박사의 기술 담당 파트너 역할이다. 갑초부터 화려한 주·조연배우들의 라인업은 벌써부터 관객들의 기대를 모은다.

◇역사를 가로지르던 감독의 발걸음 '1947 보스톤'

역사적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감동적인 서사도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와 마라톤을 다룬 강재규 작 '1947 보스톤'이 바로 그것.

작품은 광복 이후 1947년 서울에서 '제2의 손기정'으로 촉망받던 '서윤복(임시완)'에게 손기정(하정우)이 나타나 '보스톤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자는 제안을 건네며 막을 올린다.

30초 예고편에서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못 뛰었으니까, 자기 조국에서 자기 이름으로 뛰게 해줘야지", "저희는 조선의 독립을 알리려 이곳에 왔습니다" 등 쏟아지는 명대사에 관객들이 남긴 영화 기대평도 호평 일색이다. 여기에 1936년 당시 2시간 29분 19.2초라는 신기록으로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된 손기정 선수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



했다는 점도 의미를 더한다.

마라토너 손기정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당시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리스트가 됐지만, 사상식 연단에는 일본의 기미가요가 울려 퍼졌다. 사상대에 놓인 화본으로 가슴팍에 달린 일장기를 가려 당시 조선반도의 '영웅'으로 추앙받았으나, 이로 인해 일제의 탄압을 받았던 비극적 일화의 주인공이다. 하정우 임시완 주연에 남승룡 역에 배성우, 김상호, 박은빈, 류해준 등 출연.

◇강하늘과 정소민의 코미디 로맨스 '30일'

끝으로 남대중 감독의 코미디로맨스 영화 '30일'은 연휴 말미인 다음 달 3일에 개봉한다. 강하늘 배우는 "이번 작품이 '로맨틱 코미디'가 아니라 '코미디 로맨스'라며 사랑의 달콤함보다 '웃음'을 초점화했음을 암시했다.

지성과 외모를 겸비했지만 '짜질한' 성격인 정영(강하늘)과 커리어, 톡기를 지닌 나라(정소민). 두 사람은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졌지만 서로의 부족함을 경험하며 이별을 결심한다. 30일 뒤에 완전히 헤어지기로 타협한 이들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교통사고는 '동반 기억상실'을 유발한다. 두 사람은 과연 행복했던 기억을 먼저 되찾아 다시 사랑에 빠지게 될까, 아니면 고통스러웠던 과거부터 떠올려 영영 갈라지게 될까.

로맨스로 시작해서 점차 스릴러가 되어가는 듯한 작품은 울고 웃는 현실 속 연인들의 모습을 그려낸다. 아울러 예상하던 전개에서 오는 반전있는 전개는 카타르시스를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1 '1947 보스톤'
- 2 '30일'
- 3 '거미집'
- 4 '천박사 퇴마 연구소:설경의 비밀'



무빙

OTT로 다양하게

OTT 프로그램 열풍이 식지 않고 있다. 집에서 편안하게 크로스오버 국악공연부터 영화, 액션히어로물, 경연프로그램 등을 감상할 수 있어 열기가 뜨겁다. 한가위 연휴를 맞아 집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OTT 프로그램' 세 편을 추천한다.

대한민국 최초 국악경연프로그램 '풍류대장'
록밴드 전성기 재현 '불꽃밴드'
특별한 초능력자들의 확신의 기대작 '무빙'



티빙에서 상영 중인 '풍류대장'은 2021년 JTBC에서 방송 당시 최고시청률 4.6%를 기록하며 국악 프로그램에서 찾아보기 힘든 인기를 끌었다. 국악과 대중음악의 크로스오버를 통해 우리 음악이 가진 멋과 풍치를 보여준다는 기획으로 '대한민국 최초 국악 경연 프로그램'을 타이틀에 걸었다.

진행은 전현무가 맡았으며 심사위원으로 이적, 김종진, 박정현, 성시경, 송가인 등 국내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크로스오버'를 기치로 내건 만큼 다양한 음악장르의 융복합 무대를 볼 수 있었다. 많은 아티스트들이 출연했는데, 그중 소리꾼 최효주는 화사 원곡의 대중가요 '마리아'의 반주에 맞춰 춤, 랩, 국악을 조화시켰다. 또 프로젝트 WERO 팀은 신해철 곡 '제즈카페'에 아프리카 악기 '토킹드럼', 콘트라베이스와 건반, 재즈선율을 곁들여 고혹적인 목소리를 들려준다. 강태관은 '코뿔소'로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아 최고점을 얻는 등 다양한 아티스트의 볼거리가 가득하다.

또 티빙에서는 MBN '불꽃밴드'도 볼 수 있다. 대한민국 록밴드의 '르네상스'를 호령하던 밴드들이 무대에서 그시절 '전설'을 재현하는 음악경연 프로그램이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전인권 '격정말야요 그대' 중)

가사만 들어도 '레전드'인 밴드들의 긴장되는 첫 대면부터 자신만의 사운드를 보여주는 경연무대까지 볼 수 있다. 먼저 등장한 김종서밴드는 '부활', '시나위' 출신으로 K-록의 한 축을 만들어 왔다. 이어 '부활'이 무대에 올랐는데, 대한민국 3대 기타리스트 김태원과 걸출한 보컬 이승철, 박완규, 정동하 등을 배출해온 록 발라드의 중심 밴드로 명성을 쌓았다. 부활 출신인 김태원과 현세대 부활 멤버들 간 미묘한 긴장감을 보는 재미도 기대를 모은다.

야수와 보컬리스트로 불리며 유튜브에서 MZ세대를 접수한 '권인하 밴드'도 출연했다. '천둥호랑이'라는 별명을 갖고 최근 활발한 방송활동을 펼치며 '파워풀한 목소리를 가졌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편 디즈니에서 지난 달 공개한 웹드라마 '무빙'은 총 20부작의 한국 액션드라마인데 디즈니 최고의 흥행작으로 손꼽힌다. 강풀 작가의 동명 원작을 영화화했는데 지난 달 기준 5주 연속 OTT 통합 랭킹 차트 1위 자리를 지킬 만큼 흥행에 성공했다.

초능력을 숨기며 살아가는 아이들, 과거의 아픔을 감춘 채로 살아온 부모들이 세대를 초월해 만나 거대한 위협에 맞선다는 내용이다. 고통을 느끼지 않는 국정원 요원 장주원(류승룡), 비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김두식(조인성), 초인적인 오감 능력을 보여주는 이미현(한효주) 등의 '능력'은 흥미로운 스토리라인을 기대하게 한다. 류승룡, 한효주, 조인성, 차태현, 류승범 등 국내 톱배우들이 출연했다.

넷플릭스에서도 음악 다큐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조수미, 악동뮤지션, 임재범, 비, 유리얼 등 내로라하는 뮤지션들이 '단 한 곡'의 노래를 선택해 원테이크로 촬영하는 음악다큐 '테이크 원'이 바로 그것. 일반적인 공연예술 영상물은 카메라 기법이 나 편집 등을 통해 최적의 결과물을 전달하지만, '테이크 원'은 제복에서 드러나듯 조금 부족하더라도 단 한 번 기회에 맞춰 원테이크 공연을 준비하는 전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다.

프로그램에서는 이달 전남대 축제를 방문했던 남매 듀오 '악동뮤지션'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넷플릭스 테이크 원에 출연한 '악뮤'